

주목할만한 신작영화 **차승원 주연 '힘을 내요, 미스터 리'**

# 웃겼다... 울린다...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걸 코미디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지적장애인 역할이라서 희화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다. 만족스럽다."

배우 차승원(49)은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차승원은 '신라의 달밤'(2001) '라이터를 켜라'(2002) '선생 김봉두'(2003) 등에 출연하며 한국 코미디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주역이다. '이장과 군수' 이후 12년 만에 코미디영화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간 코미디를 왜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 적당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인 코미디로 돌아왔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작품은 예전에 했던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나이를 먹으니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다.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코미디를 만나면 어떨지 생각하던 중에 이 작품을 만났다."

이와 같은 아빠 '철수'가 어른 같은 딸 '셋별'과 예상치 못한 여행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코미디영화 '럭키'(2016)로 700만 관객을 모은 이계백(48) 감독의 신작이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추석연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9월11일 개봉.

차승원은 전매특허 격인 코믹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대박 칼국수의 수타 장인 '철수' 역이다. 하루아침에 '딸' 버락을 맞고 자신의 미스터리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이다.

감독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연기에 집중했다. "감독 이계백보다 인간 이계백이 훨씬 인간적"이라며 칭찬했다. "감독의 모습 중에 철수가 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철수의 모습이 이 감독에게 있다. 현장에 갈 때마다 감독의 얼굴을 보고 연구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다. 철수는 지하철 화재사건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게 된 소방관이다. 이 감독은 "당연히 조심스러웠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안전문화재단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소방관들도 만났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영화로 안 만들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자세하게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철수의 후유증을 내세우기보다는 결핍된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었다. 희화화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블라인드 사회를 했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철수 캐릭터를 소시민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철수를 히어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소방관들이 원래 우리 곁에 있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게 철수에



**지하철 화재사건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게 된 전직 소방관과 어른스러운 딸의 이야기 다뤄**

**차승원 '영화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려 만족스러워'**

게 감정이입을 한 것 같다." 차승원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확연히 다른 연기를 보여준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기가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색하지 않게 넘어가게 하려고 했고, 그 부분을 걱정했다. 철수의 외적인 부분은 단조롭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 감독과 많이 상의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비주얼이 나왔다. 철수의 말투나 행동양식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 얼굴 근육을 다르게 움직이는 연기도 설정한 것이 아니다. 결핍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엄재영(12)은 철수의 딸 '셋별'이다. 백혈병으로 오랜투병 생활을 했지만 밝고 씩씩한 인물이다. "엄마와 연기 연습을 했다. 거울을 보면서 표정연기를 많이 연습했다. 촬영장에서 많은 배우들이 도움을 줬다. 차승원 아빠도 좋은 조언을 해줬다. 덕분에 잘 촬영할 수 있었다." 배역을 위해 사발도 했다. "머리를 밀어서 따끔하고 힘들었다. 실제로 몸이 아픈데 굳세게 버티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찍었다.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고 힘냈으면 좋겠다." /뉴시스

박해준(43)은 철수를 자나깨나 걱정하는 동생 '영수'를 맡았다. "이번 연기가 굉장히 편했다. 실제로 내가 동네를 다니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편안하게 내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다."

차승원은 '딸 바보'의 면모를 아낌없이 드러낸다. 애뜻함을 자아내는 부녀케미를 선보인다. "실생활과 연기가 다를 수는 없다. 하하. 내가 하는 것이니 실제 모습이 조금은 물어났을 것이다. 이번 영화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준비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동안 네 비게이션처럼 연기한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있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놓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영화에는 그동안 쌓아온 차승원이라는 사람의 베이스가 있었다. 딸에 관한 부분도 기본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 나온 것 같다."

"명절에는 코미디"라는 공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아가씨'(2016) '독전'(2018) 등을 만든 용필름이 제작했다. /뉴시스

## '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상습 아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호주서 혐의**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면서도 "정씨가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비춰봐도 정씨가 상습성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도 이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항소심에서 봐도 이같은 형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마약 수수와 투약을 구분해 처벌해달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네받아야 해서 그런 경우까지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